

동아리회장단 임시회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1. 교육의 필요성

- 2010년 연세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에 공식 신고된 성희롱 사건들 중 당사자 간 합의중재로 종결 처리된 2개의 사건과 성폭력대책위원회에 공식 상정되어 처리된 1개의 사건이 동아리 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 사건임
- 매년 상담실에 공식 신고 접수되어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의 수가 10건 내외임을 고려할 때 이는 비교적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음
- 대학 내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은 성별 권력관계나 학년 권력관계의 맥락 안에서 친밀함을 가장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아리라는 환경은 그 특성상 임원진과 회원, 기수별 위계관계 등 권력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잦은 모임과 행사 등을 함께 하며 맺어진 밀접한 친분관계가 핵심적인 특성이므로 권력관계나 친밀함을 가장한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을 경우 성희롱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 실제로 신고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동아리 활동에서 일어난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 상담에서는 '다들 좋은 선배라고 하는데 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동아리 분위기를 망칠까봐', '나는 동아리 내에서 학년이 낮는데 괜히 문제를 제기했다가 동아리 활동에 제약을 받을까봐' 등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먼저 동아리 내 권력 관계의 핵심에 있는 임원진들이 이러한 동아리 내 성희롱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물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모범이 됨으로써 동아리 내 양성 평등한 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2. 동아리 내 성희롱 발생 유형 중 가장 빈번한 형태: 뒷풀이 술자리에서의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 동아리 뒷풀이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그렇게 하면 앞으로 동아리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계속 술 마시기를 강요함
- 뒷풀이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숙하다가 서로 의식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를 더듬고 키스하거나 껴안음.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함
- 여러 명의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뒷풀이를 시작했으나 마지막까지 남은 두 사람 중 덜 취한 사람이 만취하여 의식이 분명치 않은 상대방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거나, 술이 깼을 때까지 DVD 방이나 모텔에서 잠시 쉬다 가자고 하며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성추행

- 동아리 전체 모임에서 이미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여 함께 행사를 한 후, 뒷풀이에서 후배 여학생들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거나, 술을 따르라고 하는 등의 권유를 함
- 뒷풀이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과도한 신체적 스킨십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친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함

3. 동아리 임원진의 역할: 이렇게 실천합시다!!

- 동아리 전체 모임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말한 구체적인 성희롱 사례들을 공유하고, '친밀함' 과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정의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합니다.
- 동아리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명시한 자치규약을 제정하고 실천합니다.
- 뒷풀이에서 임원진이 만취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뒷풀이에서 성희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원진이 우선 노력해야 하며, 성희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동아리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대신 변명하거나 축소시켜 무마하려는 행위는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책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을 통해 학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 줍니다.
-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상담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을 명심하여 피해자에게 전체 동아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가해자의 사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는 행동을 하지 말고 피해자가 원하는 처리 방식을 우선 경청하도록 합니다.
- 피해자가 원할 경우 동아리 대표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상담실을 통해 고충 상담 및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중재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니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아리 내에서 소문이 퍼지게 되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회원들 간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축제나 연고전, 기타 동아리 자체 행사 후의 전체 뒷풀이에서 술이 만취되도록 마시거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합숙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4.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안내

- 상담실 위치: 학생회관 203호
- 상담가능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 상담예약방법: 전화(02-2123-2118) 또는 이메일(helper@yonsei.ac.kr)